

2018. 06.
Vol.41



2017년 청년 사회 · 경제실태조사¹⁾

김기현 선임연구위원
이윤주 부연구위원
유설희 전문연구위원
배진우 연구사업운영원

개요

조사목적 ▶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① 인구와 가족, ② 교육과 훈련, ③ 경제와 고용, ④ 주거, ⑤ 건강, ⑥ 문화와 가치관, ⑦ 관계와 참여, ⑧ 사회적응의 총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「2017년 청년 사회 · 경제실태조사」를 실시하였음.

조사대상 ▶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~ 만 39세의 일반국민
▶ 전체 2,714명, 남자 1,412명(52.0%), 여자 1,302명(48.0%), 만 15~18세 422명(15.5%), 만 19~29세 1,150명(42.4%), 만 30~39세 1,142명(42.1%)

조사방법 ▶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

조사기간 ▶ 2017년 8월 ~ 9월

1) 본 '블루노트 통계'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과제인 '청년 사회 ·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' 보고서의 일부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 정의

■ 2017년 청년 사회·경제실태조사 결과, 연령 정의에 있어 아동은 4.5세~11.2세, 청소년은 12.2세~18.4세, 청년은 19.4세~31.2세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.

- 2016년 조사에서는 청년을 19.3세~ 29.5세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2017년에는 19.4세~31.2세로 청년 연령을 정의한 것을 통해 청년 연령에 대한 상한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.
- 특히, 30~39세 연령층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의 상한의 경우, 2016년 29.8세에서 2017년에는 31.7세로 응답함으로써 30대층의 청년에 대한 연령 상한이 자신들을 포함한 연령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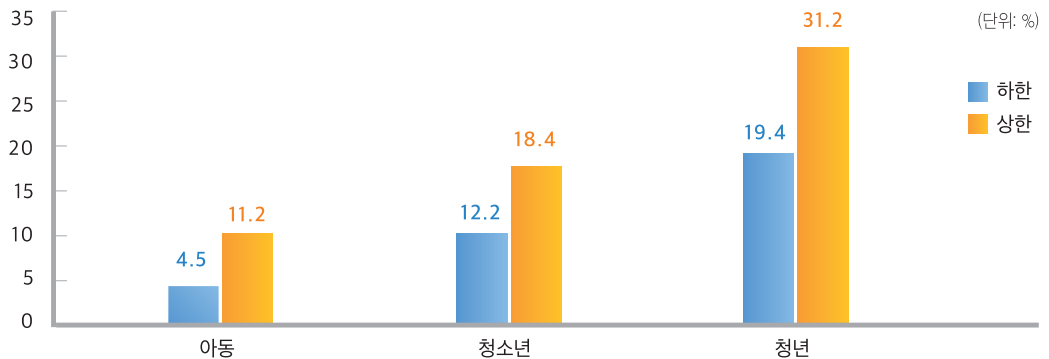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아동, 청소년, 청년 연령 정의 응답 결과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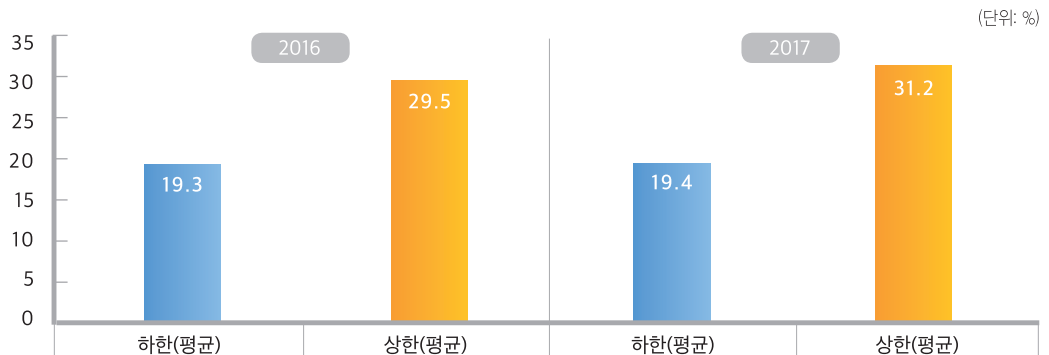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2016년 대비 2017년 청년 연령 정의 응답 결과(%)

2 청년들이 생각하는 해외이주 의사

■ 해외이주 의사에 대한 응답 결과는 2016년 22.2%에서 2017년 36.0%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

- 특히, 여성 청년의 해외이주 의사는 2016년 22.3% 였던 것에 비해 2017년 39.3%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한국사회에서 남성 청년에 비해 여성 청년이 해외이주를 고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최근 '미투(Me too)운동' 등을 비롯한 사회적 변화와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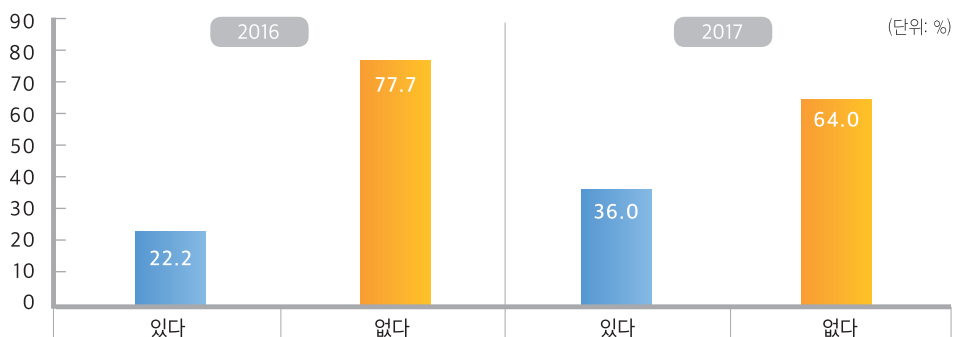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해외이주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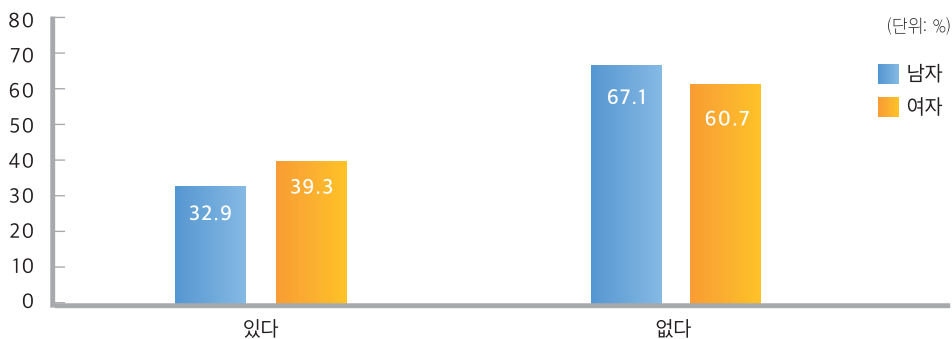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성별에 따른 해외이주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(%)

■ 해외이주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“행복한 삶을 위해서”가 2016년 27.8%에 비해 2017년 34.3%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.

- “행복한 삶을 위해서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청년들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해 볼 수 있음.
- 한편, “자기 계발을 위해서” 또는 “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” 등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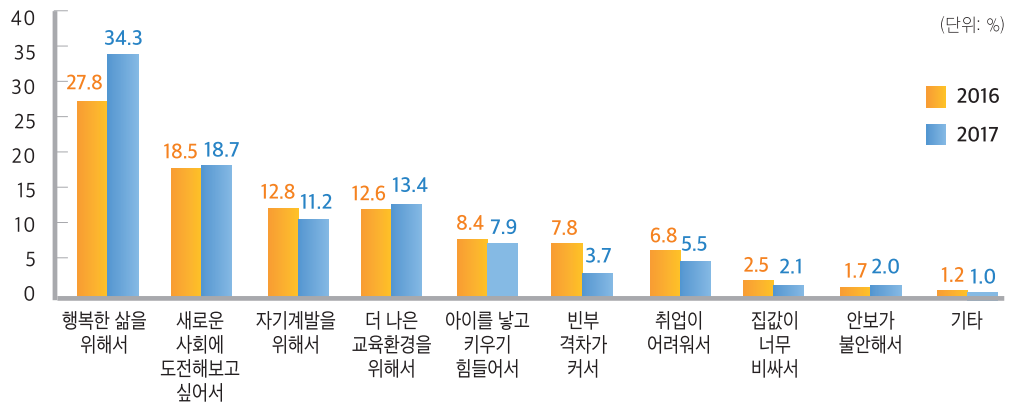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해외이주를 고려하는 이유 응답 결과(%)

3 교육 관련 청년 의견 및 실태

■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개인적으로 졸업 필요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,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
- 졸업 유예경험은 2016년 5.3% 인 것에 비해 2017년 14.5%로 크게 증가함. 졸업 필수요건 미이수 경험도 2016년 2.2%에서 2017년 6.1%로 증가함.
- 전체적으로 졸업유예 비율은 7.5%에서 20.6%로 두배 이상 증가해 졸업유예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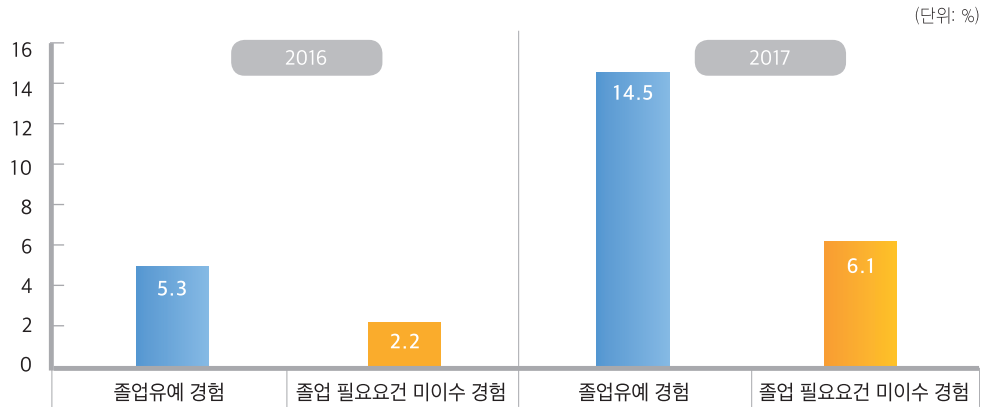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졸업유예나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여부(%)

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, 2013년 14.2%에서 2017년 38.4%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.

— 이는 ‘선 취업 후 진학’이나 ‘일-학습병행제도’ 등과 같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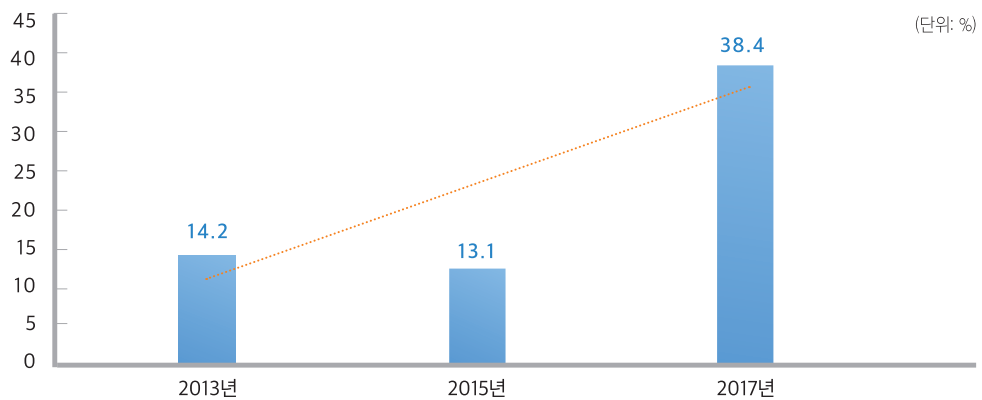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대학 비진학자 향후 대학 진학 의향(%)

4 고용 관련 청년 의견 및 실태

■ 청년들은 고용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안정적인 회사(31.4%)를 적성에 맞는 회사(22.3%) 보다 더 선호 하는 것으로 응답함.

- 다음으로 급여가 높은 회사(19.5%), 분위기 좋은 회사(9.0%),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(8.8%), 퇴근이 빠른 회사(6.9%), 유명한 회사(1.6%) 순으로 나타남.
-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총 52시간(법정 근로시간 40시간, 연장근로시간12시간)으로 제한되는 변화를 반영하듯이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2016년 2.7%에 비해 2017년 6.9%로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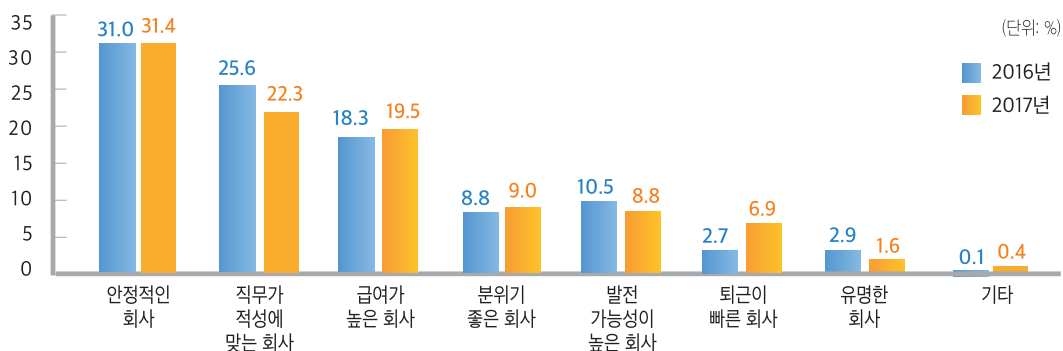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응답 결과(%)

■ 청년의 59.4%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. 2016년에 68.9%의 비율로 나타난 것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.

-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서 20.6%가 '고용 불안정'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고, '낮은 급여 수준'과 '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'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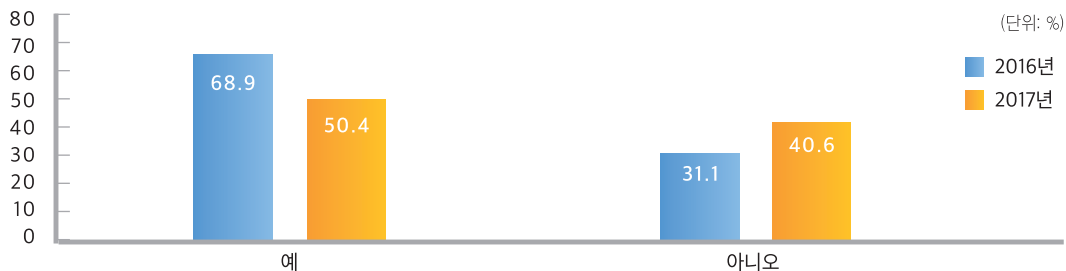


그림 9 중소기업 취업 의향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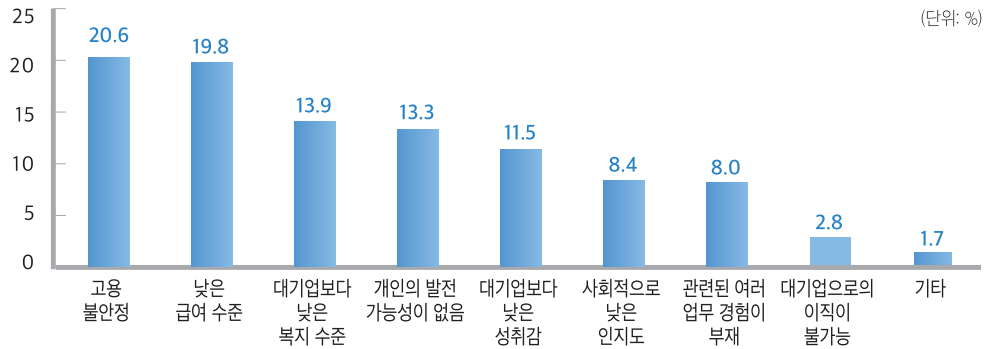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(%)

5 청년들의 주거 현황

■ 청년 가운데 미혼 1인 가구 여부는 2016년 14.9%에서 2017년 25.3%로 증가함.

- 미혼 1인가구의 주거형태는 원룸(37.1%)이 가장 많았고, 이어서 아파트(27.7%), 다세대 혹은 빌라(22.2%) 순으로 나타남.
- 한편,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에 있어서는 92.9%가 공동거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, 92.0%가 향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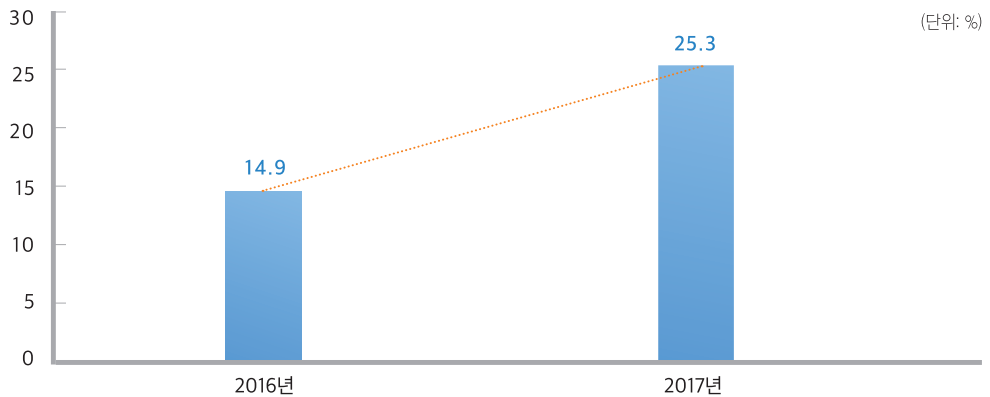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 미혼 1인가구 여부 응답 결과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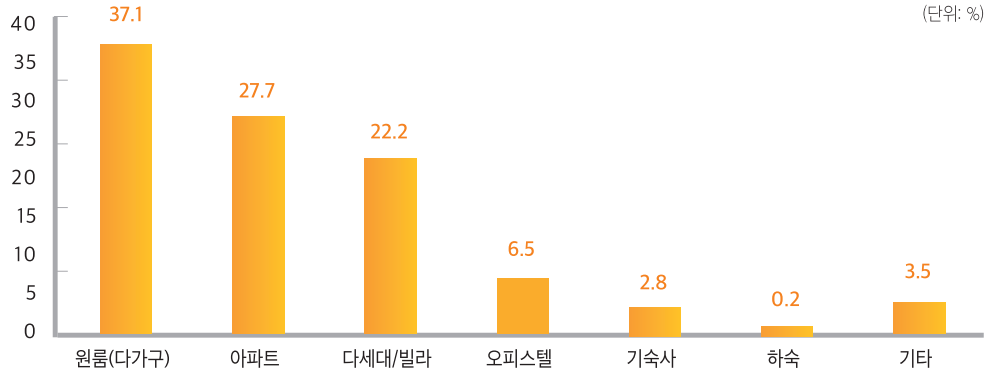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 미혼 1인가구 주거형태 응답 결과(%)

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 동거 여부에 대한 응답에 있어 '현재 같이 살고 있다'가 51.0%로 나타남.

-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은 4.4%이며,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는 44.6%로서 청년층 가운데 경제적 또는 주거 측면에 있어 부모와의 독립이 이뤄지지 못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.
- 이는 '현재 집값의 수준이 적정한가'에 관한 응답에 69.4%(그렇지 않다+ 전혀 그렇지 않다)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연계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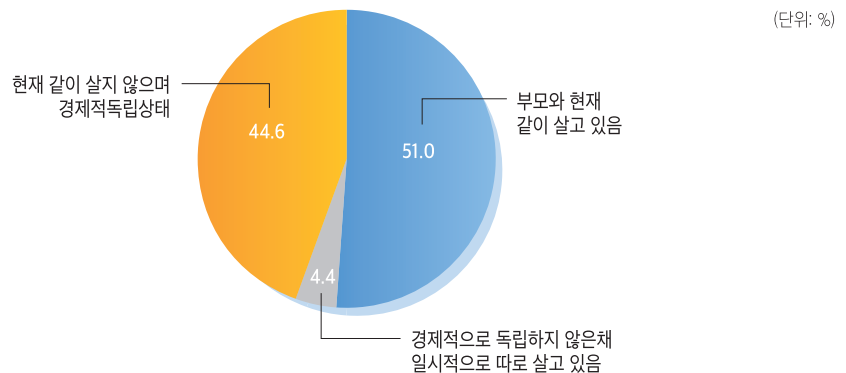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 응답 결과(%)